

01 교회소식

“영적인 고향 찾아 왔어요~”

인터넷 화상을 통해 우리 교회와 함께 신앙생활하며 천국을 침노해가는 말레이시아, 태국 농아 성도들이 은혜의 땅을 밟았다.

02 생명의 말씀

사랑은 오래 참는 것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린 사람은 자신에 대해서는 물론 어떤 악한 사람이라도 오래 참고 기다려 줄 수 있다.

03 기획특집

‘베리칩’이 주는 의미

인체에 삽입해 사용하는 RFID 응용 제품의 한 가지인 베리칩을 통해 그것이 주는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본다.

04 간증

“구원과 응답의 주님을 만났어요”

세 조각 난 코뼈를 권능으로 치료받은 빈자나 자매와 성결 복음을 듣고 방향의 삶에서 벗어나 변화한 태국 솜차이 전도인의 간증.

만민뉴스

제547호 2012년 8월 26일 (주간)
MANMIN NEWS
교회 대표전화 02-818-7000
www.manmin.org

은혜와 감동의 땅을 다닌 해외 농아 성도들

말레이시아, 태국에서 농아 성도 50명 우리 교회 방문



해외 농아 성도들은 우리 교회 방문을 통해 하나님 사랑과 권능을 체험하며 영적 믿음과 천국 소망이 더해졌다. 사진은 8월 3일 인천공항 도착①, 한국어·말레이시아어·태국어 3개 언어 수화 통역으로 진행된 예배②, '2012 만민 남녀선교회 하계수련회' 캠프파이어③.

지난 8월 3일 말레이시아, 태국에서 해외 농아 성도 50명이 우리 교회를 방문했다. 인터넷 화상예배(한국어, 말레이시아어, 태국어 수화 통역)를 통해 당회장 이재록 목사의 설교에 은혜받고 다니엘철야 기도회에 참석하며 신앙생활을 하던 중, 권능의 현장인 우리 교회를 직접 방문하게 된 것이다.

인솔자 지정훈 목사는 “올해 5월 조수열 목사(우리 교회 농아인선교회 지도교사)를 강사로 태국과 말레이시아 만민농아교회에서 열린 집회에서 갖가지 질병이 치유되는 역사를 체험한 뒤 마음이 더욱 뜨거워졌으며, 7월 초부터 8월 초까지 하나님께서 매일 무지개를 보여주셔서 방문에 대한 기대감이 매우 컸다.”고 전했다.

이들은 해외에서 화상으로만 함께 하던 금요철야예배, 주일예배 등 각종 예배와 다니엘철야 기도회에 직접 참석하니 현장감이 느껴지고 하나님 말씀이 더욱 마음 깊이 새겨진다고 고백했다.

또한 8월 6일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2012 만민 남녀선교회 하계수련회’에 참가해 우리 교회 및 전국 지교회, 해외 23개국 성도들과 함께 ‘영’을 주제로 한 교육과 성령충만기도회, 체육대회, 캠프파이어 등 각종 프로그램을 통해 영의 공간을 체험했다.

뿐만 아니라 당회장 이재록 목사의 기도로 바닷가의 잔물이 마실 수 있는 단물로 된 권능의 현장, 무안단물터(전남 무안만민교회 소재)를 방문해 마음의 소원을 품고 침수했으며, ‘하늘 보기’ 행사를 가짐으로 여러 가지 기사를 체험했다.

이 밖에도 권사회와 성도들의 환대로 행복한 시간을 가졌으며, 만민기도원 이복님 원장, 총괄대교구장 이수진 목사와의 은혜로운 만남도 있었다. 방문 일정 내내 농아 성도들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떠나지 않았으며, 이들의 순수한 신앙 열정은 성도들에게도 잔잔한 감동이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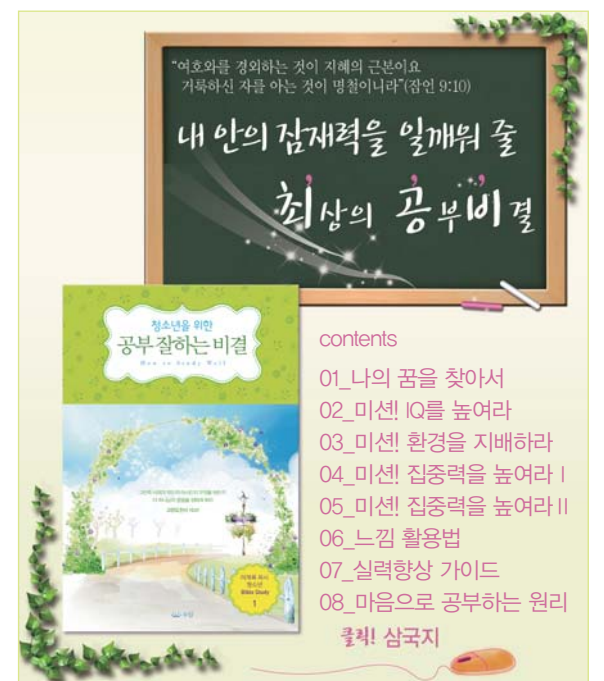
태국 분나피닷 동신 성도(남, 43)는 “당회장님 설교 말씀을 통해 동성애가 죄임을 깨닫고 돌이켜 참 생명을 얻었습니다. 사모하던 만민중앙교회 성전에 직접 와 보니 거룩하고 성결한 향을 느낄 수 있었고 제 자신도 더욱 성결되기 위해 노력해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또한 모든 일정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느낄 수 있었습니다.”라고 말했다.

말레이시아 아델네 팡 덴이 성도(여, 28)는 “다니엘철야 기도회에 직접 참석하니 은혜가 넘쳤습니다. 또한 수련회 때 잠자리가 날아와 손에 앉았고 무안단물터에 침수해 영안이 열려 많은 보석을 보았습니다. 만민중앙교회 방문은 성결을 향해 달려갈 것을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라고 말했다.

이재록 목사의 청소년 바이블 스터디 교재 『공부 잘하는 비결』 발간

2012년 하반기 학생주일학교 공과 교재가 오는 8월 31일 발간된다. 이번 교재는 ‘크리스천 학생들이 자신의 꿈과 목표를 찾고 세상에서도 뛰어난 사람이 돼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자’는 취지에서 이재록 목사 저서 『공부 잘하는 비결』을 토대로 제작했다.

마음 받을 진리로 개간함으로 아이큐를 높이는 법, 환경을 지배하고 집중력을 높이는 법, 느낌 활용법, 마음으로 공부하는 원리 등 믿음의 힘과 성령의 도우심을 학업에 활용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하고 있으며, 9월 중순부터 시중 서점에서 판매된다.



‘2012 주사랑선교회 하계수련회’ 개최

우리 교회 새터민들의 모임 ‘주사랑선교회(지도교사 박상준 목사)가 지난 8월 21일부터 23일까지 강원도 고성 금강산 콘도에서 하계수련회를 가졌다.

올해 만민 하계수련회 전체 주제인 ‘영’(요 4:24)을 주제로 첫째 날에는 신동초 목사, 둘째 날에는 박상준 목사를 강사로 교육이 있었다. 또한 둘째 날 오전에는 김형선 지역장의 진행으로 ‘우리는 하나’라는 레크리에이션이, 저녁에는 박인철 목사(주사랑선교회 부지도교사) 인도로 우등불모임(캠프파이어)이 진행됐다.

마지막 날에는 통일전망대에서 ‘북한을 위한 기도회’ 행사를 통해 북한 영혼과 가족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당회장 이재록 목사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고린도전서 13:4)

사랑은 오래 참는 것

사랑할 수 있을까? 걱정스럽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사랑을 하려면 이런 사람들도 참고 사랑해야 합니다. 상대가 이유 없이 나를 헐뜯고 미워할지라도 마음을 다스려 참고 상대를 사랑할 수 있어야 하지요.

이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사랑하고자 할 때 만나게 되는 모든 어려움을 참고 견디는 것이 바로 오래 참음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사랑장의 ‘오래 참음’은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의 ‘오래 참음’에 비하면 작은 범주의 사랑에 속합니다. 성령의 열매의 오래 참음은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범사에 오래 참는 반면, 사랑장의 오래 참음은 상대를 사랑하기 위해 참는 개인적인 차원이기 때문입니다.

2. 오래 참는 사랑의 위력

마태복음 5:44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말씀합니다. 원수는 원한이 맺힐 정도로 해를 끼친 사람입니다. 죄인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도 원수도 사랑하시고 핍박하는 이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인생들은 오직 선한 일만 행하신 예수님을 오히려 조롱하고 멸시 천대했지요.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눅 23:34) 하시며 중보 기도를 올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과 원수가 된 인생들을 오래 참으시고 사랑하셨습니다. 그 결과 주님을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는 사람마다 원수 마귀 중에서 벗어나 하나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지요. 이처럼 오래 참는 사랑의 힘은 위대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얼마나 오래 참고 계신가요? 까닭 없이 여러분을 헐뜯고 미워하는 사람이라도 오래 참고 사랑할 수 있나요? 혹여 원수도 아닌 아내, 남편, 자녀, 믿음의 형제들에게 ‘참기 어렵다.’ 하지는 않나요?

마태복음 5:39~40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네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 대며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겹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하셨습니다. 얼

마나 염치가 없으면 남의 속옷을 달라하겠습니까? 이는 사랑에 사랑을 더하라는 말씀입니다.

요즘은 남이 자신의 신변이나 재산에 조금이라도 해를 끼치면 참지 못하고 곧바로 송사를 하기도 합니다. 상대가 아내, 남편, 부모, 자녀라 할지라도 상관없습니다. 오히려 참고 가만히 있으면 바보라고 여기기도 하지요. 그렇다면 우리도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갚아 줘야 할까요? 아니지요. 참고 인내하며 선으로 대해 줘야 합니다.

혹여 “억울하고 분해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라고 반문할 분이 계십니까? 영적인 믿음과 사랑이 있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바로 독생자 예수님을 죽인 죄인들을 오래 참으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믿음이 있기 까닭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이런 사랑을 받았다는 것을 믿는다면 아무리 큰 해를 끼친 사람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생명이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주님을 사랑한다면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없지요.

3. 영적인 오래 참음을 이루려면

어떤 사람은 미움, 혐기, 감정을 억지로 꺾고 눌러 참다가 자신의 한계점에 다다르면 폭발하고 맙니다. 또 내성적인 성격으로 인해 겉으로 표현하지 못하고 화병까지 얻는 사람도 있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오래 참음은 변함 없이 끝까지 참는 것입니다. 즉 참는다는 말 자체가 필요치 않는 참음이지요. 미움, 서운함 등을 마음에 쌓아 두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생גיע 하는 근본 악을 빼내 버리고, 자비와 사랑으로 승화시키는 것이 영적 의미의 오래 참음입니다.

마음에 악이 없고 영적인 사랑만 가득하면 원수라도 사랑하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원수 맺을 일이 없고 아무리 이해 못할 사람이라도 사랑스러워 보이지요. 허물이나 단점이 있어도 상대가 싫지 않습니다. 나를 미워하고 싫어해도 밉지가 않지요.

반면 마음 안에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등 비진리가 있으면 아무리 좋은 사람도 내 마음에 맞지 않으면 단점이 보이고 싫은 마

음이 앞섭니다. 또 자신이 거짓말을 잘하면 상대가 아무리 진실을 말해도 거짓말한다고 여깁니다.

그러면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 얼마나 참아야 주어야 할까요? 이에 대해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일곱 번까지 하오리이까?”라고 여쭙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일곱 번뿐 아니라 일흔 번씩 일곱 번이라도 할지니라”고 말씀하시지요(마 18:21~22).

‘7’은 완전함을 의미하는 수로 완전히 용서하라는 뜻입니다. 즉 무한대의 용서와 사랑을 말하지요. 하루아침에 미워하는 마음을 사랑으로 바꾸기란 쉽지 않습니다. 끊임 없이 노력해야 합니다. 각자의 믿음의 분량에서 감정이나 혐기가 나더라도 그것을 버리기 위해 끊임없이 참고 노력하면 점점 진리로 바뀌고 영적인 사랑이 자랍니다.

마음 깊이 뿌리내린 죄성은 성령 충만함을 입어 불같이 기도할 때 버릴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선을 베풀고자 하는 노력도 따라야 합니다. 이렇게 행해 나가면 어느새 마음에서 미움이 사라지고 상대를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누구와도 걸림이 없고 미운 사람이 없으니 마치 천국에 있는 것처럼 행복하지요. 모든 비진리를 버리고 선과 사랑만 가득하기 때문에 오래 참을 일이 없고 모두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마음에 악이 없고 선한 사람일수록 오래 참을 일도 없습니다. 참는다는 해도 억지로 참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변화되기까지 기다려 주지요. 그렇다면 천국에서도 오래 참아야 할까요? 천국은 눈물, 슬픔, 고통, 악이 없고 오직 선과 사랑만 있습니다. 상대를 미워할 일도 없고 화를 내거나 짜증 낼 일도 없지요. 다만 하나님께서 “사랑은 오래 참고” 말씀하심은 사람들 편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표현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벗어버림으로 자신에 대한 오래 참음은 물론 어떤 악한 자라 할지라도 사랑으로 오래 참고 기다려 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

성격이 급한 사람은 오래 참지 못해 많은 실수를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령, 하나님 말씀과 위배된 죄와 악을 버리기 위해 금식하며 간절히 기도했는데 자신이 원하는 만큼 변화되지 않으면 이내 낙심합니다. 또 응답받기 위해 정성껏 예물을 심고 기도했는데 아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으면 불안해하고 지치기도 하지요.

이처럼 기도 응답은 물론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영적인 사랑을 이루는 데에는 오래 참음이 있어야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1. 오래 참는 사랑이란?

고린도전서 13:4 이하에 영적인 사랑을 이루는 데 필요한 15가지 항목이 나옵니다. 그중에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바로 “사랑은 오래 참고”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담긴 영적인 뜻은 무엇일까요? 바로 사랑하는 데 있어서 만나게 되는 여러 가지 시련들과 ‘나 자신’에 대해 오래 참는 것을 말합니다.

가령, 자신은 아무 잘못도 없는데 누군가 시기 질투하며 미워합니다. 이런 사람이 주변에 있다면 피하고 싶고 우연이라도 만나고 싶지 않지요. 그러나 ‘어떻게 그 사람을

만민뉴스
등록 다-1840(1989. 7. 12)

발행인 이재록
편집인 빈금선

e-mail news@manminnews.com
홈페이지 http://news.manmin.org

만민중앙성결교회
서울시 구로구 구로3동 235-3
대표전화 02) 818-7000



교회버스 (교회 차량/ ☎ 02) 818-7391~5)
주일·금요일 야 각 지역별 운행(서울특별시 및 경기도 일원)

지하철
2호선 구로 디지털단지역(번 출구)/ 환승 5536
7호선 남구로역(번 출구) 도보 10분

시내버스
디지털단지 오거리 정류장/503,504,571,652,5618,5619, 5626,5630,5712,5714
연희미용고등학교 정류장 (남부순환도로)/ 651,5528, 504,643,5626
구로디지털단지역 정류장 (시흥대로)/5,51,150,505,507, 5531,5534,5601,5616,5617,5620,5621,5623,5624, 5625,5627,5633,5713,6512,6635,금천06/환승 5536
만민중앙교회 앞 정류장/ 5536, 5615(편도), 5616(반대편 편도)

만민중앙교회

주일 대예배	1부 10:00 AM 2부 11:30 AM
주일 빛과소금교회 예배	9:00 PM
주일 빛과소금요식업선교회 예배	11:00 PM
주일 저녁예배	3:00 PM
금요일아침예배	11:00 PM
수요예배	7:00 PM
화요일아침예배 [대학·가나안·청년·바울·마리아]	8:00 PM
빛과소금 수요찬양예배	9:00 PM
토요일아침예배 [중·고등부]	4:00 PM
토요일아침예배 [아동부]	3:00 PM
다시·일월야 기도회	9:00 PM (매일/ 단, 금요일은 제외)
새벽예배	5:00 AM (매일/ 단, 토요일은 제외)

만민뉴스는 무료입니다

다만 정기간독 시 **우송료**만은 정기간독자가 부담합니다. 구독신청 후 온라인으로 송금하시면 됩니다.

우 송 료 : 1년분 10,000원 (신문대금은 무료)
구독신청 : 070-8240-5609 (02) 851-3845 (예금주 위성영)

국민은행 362-21-0201-106
우리은행 072-255732-02-201
농협 100072-52-061722
우체국 012419-02-047269



베리칩(VeriChip™)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인체에 삽입해 사용하는 RFID(무선식별장치) 응용 제품의 한 가지

베리칩(VeriChip™)은 미국 회사 VeriTeQ Corporation(제품을 처음 개발한 회사는 Verichip Corporation이고, 제품의 소유 및 영업권이 PositiveID Corporation을 거쳐서 현재는 VeriTeQ로 이전)에서 소유한 제품 명칭이며, 인체에 삽입해 사용하는 RFID(Radio-Frequency Identification) 응용 제품의 한 가지이다.

RFID는 무선식별장치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며, 버스나 전철 등 대중교통 이용 시 사용하는 교통카드를 통해 이미 일상 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기술이 됐다.

우리나라에서는 2013년 1월 1일부터 인구 10만 명 이상의 모든 시와 군에서 3개월 이상 된 애완견에게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RFID 의미를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말로 표현한 명칭) 또는 인식표를 의무적으로 장착해야 하는 동물보호법이 시행된다. 이로써 동물에 삽입되는 RFID도 빠른 시간 내에 보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내부 저장된 16자리 고유 번호로 개인 정보 확인 가능

베리칩은 Verification(검증, 확인)과 Chip(작은 조각, 반도체 부품)을 조합해 만든 단어이다. 이 베리칩이 사람 몸에 삽입되면 RFID 판독기를 통해 베리칩에 부여돼 있는 고유 번호를 읽어낸다. 그 후, 이 번호를 통해 미국 VeriMed™ 건강 정보 시스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돼 있는 정보를 조회함으로써 개인의 신원, 건강 정보 및 병원 진료 기록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구성돼 있다.

고유 번호가 부여된 칩이 몸에 삽입한다는 것을 우리나라 상황에 맞춰 비유해 본다면 개인의 주민등록번호가 담겨 있는 RFID 칩을 몸에 삽입하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베리칩은 2004년 10월 FDA(미국 식품의약국)로부터 의료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승인됐으며, 현재까지는 몸에 삽입되는 RFID 제품 중에서 유일하게 사용이

승인된 제품이다.

이 칩은 길이 11.5mm, 굵기 2.1mm 정도의 원통형 모양이며, 칩 내부는 16자리(700개 이상의 고유 번호를 저장할 수 있음) 고유 번호를 저장한 부분과 안테나로 구성돼 있다. 외부를 둘러싼 특수 플라스틱은 사람 세포와 쉽게 밀착될 수 있는 재질로 돼 있어서 삽입된 위치에서 움직이지 않고 고정되도록 만들어져 있다. 이 칩은 국소마취 후 주사기를 통해 팔뚝 부위에 삽입되도록 권장되고 있다.

동물에게 주입하는 형태의 RFID 제품은 미국의 베리칩 외에도 미국의 어비드(Avid ID), 프랑스의 비박(Virbac), 영국의 트로반(Trovan) 등에서도 제품이 개발돼 판매되고 있다. 이에 더해 베리칩을 개발한 회사는 GPS 위성을 통한 위치 추적이 가능한 칩을 동물 몸에 넣는 기술도 확보하고 있다(1999년 미국 특허 확보). 또한 야생 동물 위치 추적이나 가축 등 관리를 위한 용도로는 이미 제품 판매를 하고 있다.

미국 의료보험개혁법안 통해 RFID 인체 삽입 합법화 및 2013년 시행 규정

베리칩이 사회적 문제가 되기 시작한 이유는, 미국 의료보험개혁법안을 통해 사람 몸에 이 칩을 삽입하는 것이 합법화됐기 때문이다. 미국 의료보험개혁법안 목적은 3,200만 명이나 되는 의료보험 미가입자들을 지원해 주기 위해 전 국민 의료보험 의무가입을 위한 것이었다. 하지만 이 법 조항에 “a class II device that is implantable(몸에 삽입되는 2급장치)”이라는 내용이 포함됨으로 인해 사람 몸에 RFID를 삽입하는 것이 명문화됐다.

2010년 3월 21일 미국 하원을 통과한 미국 의료보험개혁법안은 이를 후 버락 오바마 대통령 법안 서명으로 법적 효력이 발생했다. 또한 발효 후 3년 이내인 2013년 3월 23일 이전에 시행되도록 규정돼 있다.

버지니아 주 연방 지방 법원에서는 2010년 12월 13일에 “모든 국민이(민간) 의료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이 미

국 헌법에 위배된다는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2012년 6월 28일 미국 대법원에서 이에 대한 합헌을 결정함으로써(합헌 여부에 대해 미국 대법원 대법관 9명 중 5명 찬성, 4명 반대) 법 시행이 확정됐다.

전 세계 사람들을 감시 통제하는 시스템으로 사용 가능

베리칩은 이미 여러 나라에서 사용되고 있다. 멕시코에서는 법무부 장관을 포함해 마약 조직과 관련된 기밀문서를 다루는 정부 요원들에게 이 칩을 장착해 기밀 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있다. 네덜란드, 스코틀랜드, 미국 마이애미의 클럽들에서는 우수 고객의 출입 및 비용의 자동 결제를 위해 이 칩을 사용하고 있다. 이처럼 개인 신분 확인, 전자 거래를 위한 용도로 이미 사용되고 있으며, 사람에 대한 임상 시험 단계를 거치지 않았지만 기술적으로는 위치 추적을 위한 기능까지도 개발이 완료돼 있다.

성경 요한계시록 13:16~17에는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라고 기록돼 있다. 이는 7년 환란의 후반부에 적그리스도에 의해 전 세계 모든 사람에게 짐승의 표를 강제적으로 받게 함으로써 사람들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24시간 감시하고 통제하게 됨을 나타내고 있다.

이 짐승의 표라는 것이 이미 널리 사용되고 있는 바코드인지, 베리칩인지 혹은 더 발전된 다른 형태의 기술일지 알 수 없다.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베리칩이 대형 컴퓨터의 데이터베이스와 연결됨으로써 전 세계 사람들을 감시하고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이것을 깨닫는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얼마나 마지막 때에 가까운지를 깨우쳐 신속하게 신부 단장을 마치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돼야 할 것이다.



고광규 장로 (미래엠엔에이치 연구소장)

profile

- 1988.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기계설계학과 졸업
- 1990. 포항공과대학교 대학원 컴퓨터공학과 졸업
- 1990. 1~2000. 2 삼성전자 멀티미디어 연구소 책임연구원
- 2000. 3~2008. 6 디지털웨이 연구소장
- 2008. 7~2011. 10 인터브로 연구소장
- 2011. 11_ 현재 미래엠엔에이치 연구소장

GCN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는 방송, GCN!

AUGUST Programming Guide

주요프로그램 안내!

이재록 목사의 '생명의 말씀'

- 십자가의 도 17-21
- 선 6-10
- 죽은자를 위한 세례 1-2
- 공부 잘하는 비결 1-3
- 일곱교회 9-13

GCN TV 설교

- 이수진 목사의 '팔복 5-8'
- 정구영 목사의 GCN TV특강
- '십자가의 도 7-10'
- 김수정 목사의 '어리석음, 슬기로운'
- 신동초 목사의 '성령의 역사 3'

찬양 프로그램

- GCN파워프레이즈(2) 2-7
- 2012 아동 예술제

GCN 특선명화

- 왕중왕 1부/2부

24시간 연중무휴 위성, 인터넷, 인터넷TV방송 A/S 문의 1577-2073



“세 조각이 난 코뼈, 창조주 하나님의 권능으로 신속히 치료됐어요”

빈지나 자매 (대학선교회)

지난 6월 21일, 저는 우리 교회 예능위원회 소속 ‘천상의 무용팀’ 단원으로 특송을 앞두고 연습에 한창이었습니다. 그런데 소품으로 사용한 반고(소고와 같으나 모양은 손잡이가 없고 반고춤을 출 때 사용하는 악기)에 코뼈가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 눈물이 핑 돌고 코가 육신거리며 코피가 ‘주르륵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화장지 문치로 코를 막은 채 신속히 휴대폰을 이용해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의 ‘자동응답서비스 환자기도’를 받았습니 다. 그 즉시 코피가 멈추고 육신거리는 증세가 사라졌지요. 신기하게도 환부에 멍이 들지 않고 통증도 전혀 없었습니다.

저는 코뼈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자 대학병원 응급실로 갔습니 다. X-ray와 CT 촬영 결과, 의사 선생님은 “코뼈가 세 조각이 나서 수술해야 합니다. 전신 마취를 하고 수술한 후, 1개월 정도는 코뼈를 지지하기 위한 고형물을 끼우고 있어야 하므로 코로 호흡하기가 곤란합니다.” 하시며 수술을 권유하셨습니다.

그동안 저는 창조주 하나님의 권능을 보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또한 ‘자동응답서비스 환자기도’를 받은 뒤 코의 이상을 전혀 느끼지 못했고 약간 부기는 있었지만 치료하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온전케 하시리라 믿었지요. 그래서 믿음으로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 기도를 받았습니 다. 바로 다음날 부기도 가라앉았지요.

7월 3일, 저는 아무 이상 없이 예정된 날짜에 특송으로 영광 돌렸습니다. 그리고 바쁜 일정으로 인해 7월 27일야 병원을 찾아 X-ray와 CT 촬영을 했지요. 그 결과, 세 조각이 나고 어긋났던 코뼈가 정상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서는 믿음을 기뻐하시고 창조주 하나님의 권능으로 신속히 치료해 주셨습니다. 더구나 예전보다 오희하고 예쁜 코로 만들어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 치료 전, 외상으로 코뼈가 골절돼 세 조각으로 어긋난 모습



▲ 치료 후, 어긋난 코뼈가 가지런히 잘 맞춰져 있음

“방탕했던 저를 거룩한 길로 인도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스리아논트 솜차이 전도인 (태국 수라타니 만민농야교회)

저는 중국인 아버지와 인도네시아인 어머니 사이에서 농아로 태어났습니다. 혼혈아로 성장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요. 더구나 아버지의 여성 편력은 정상적인 가정을 꾸릴 수 없었고, 저는 3명의 새 어머니를 맞이해야만 했습니다. 친어머니 행방은 전혀 알 수 없었지요.

이러한 가정환경으로 인해 저는 마음 둘 곳을 찾아 방황했고, 어 느새 아버지와 같은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19세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올바른 신앙을 갖지 못했기에 방탕한 삶은 계속됐지요. 주변에 소문이 날 정도로 저는 바람둥이였습니다.

2010년 1월이였습니다. 핫아이 지역 농야협회에서 일하면서 알고 지내던 지정훈 목사님(만민중앙교회 농야인선교회 부지도교사, 말레이시아 선교사)이 성경 복음과 만민중앙교회에서 나타나는 권능의 역사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지 목사님 소개로 알게 된 조셉 램벵필 전도인(태국 핫아이 만민농야교회 담당)은 화상 채팅을 통해 계속적으로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의 설교 말씀과 하나님 권능의 역사에 대해서 전해 주었지요. 당회장님 환자를 위한 기도를 믿음으로 받으면 시공을 초월해 치료받겠다고 했습니다.

그해 4월, 지정훈 목사님과 조셉 전도인을 다시 만났습니다. 조셉 전도인은 당회장님 저서 『지옥』을 보여 주며 설명해 줬지요. 그 내용은 제게 충격이었고, 두 분의 권면으로 저는 음행을 끊고 새로워질 것을 결단했습니다. 생애 처음으로 하루 금식기도를 하면

서 지난날의 잘못을 회개했지요.

그 후 핫아이 만민농야교회를 다니며 2개월 동안 매일 한 끼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 고자 노력했습니다. 당회장님 저서 『십자가의 도』를 읽으며 ‘선악과를 두신 이유’, ‘예수가 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가’ 등 구원의 섭리를 깨달으니 신앙의 많은 변화를 가져왔지요. 또한 매일 밤 기도하기를 쉬지 않으니 제 삶이 바뀌고 언행이 달라졌습니다.

2010년 6월, 그리고 2012년 5월에 서울 만민중앙교회 조수열 목사님(농야인선교회 지도교사)이 태국을 방문해 당회장님께 기도받은 권능의 손수건 기도(행 19:11~12)로 살아 계신 하나님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많은 사람이 질병을 치료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렸지요. 이러한 시간들은 제 믿음이 성장하는 계기가 됐고 영혼을 관리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복된 길로 인도받을 수 있었습니다.

2012년 8월 3일, 저는 태국, 말레이시아 농야성도들과 함께 ‘만민 남녀선교회 하계수련회’ 참석 차 두 번째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2010년 처음 만민중앙교회를 방문했을 때 교회 첫 인상은 하나님 권능으로 충만했고 주님 사랑으로 행복이 가득했습니다.

처음 뵈 당회장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따뜻한 분이셨습니다. 자 상한 아버지와 같으셨지요. 부모에게 버림받았다는 생각에 고통 속에 살아가던 제 마음은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로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 아버지를 느낄 수 있는 당회장님이 계시다는 사실에 기쁨과 감사가 넘쳤지요.

올해 역시 수련회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습니다. 특히 마라의 기적처럼(출 15:25) 바닷가의 잔물이 마실 수 있는 단물로 변한 기적의 현장 무안단물터에서는 신기한 체험을 했습니다. 무안단물에 침수할 때 하나님께서 영안을 열어주셔서 천국의 아름다운 보석을 볼 수 있었지요.

이제 저는 마음에 소중한 보석을 안고 돌아갑니다. 아름답게 세공된 보석처럼 아버지 하나님과 주님 사랑으로 빛어진 제 모습을 바라며 소망 가운데 달려가겠습니다. 할렐루야!



국내 지교회, 지성전 주소 및 연락처

주일 대예배, 주일 저녁예배, 금요침야예배를 서울 만민중앙교회와 NSS-6를 통해 동시 화상예배로 드립니다.

- 부산만민성결교회 부산광역시 진구 부암 1동 275-77 ☎070-8223-4191~4, 010-9818-9833
- 서부산만민교회 부산광역시 북구 구포 2동 109번지 복성 B/D 7층 ☎051)326-1537, 010-5521-2073
- 대구만민교회 대구광역시 북구 고성동 1가 104-9 ☎053)356-4717, 010-4575-1934
- 새대구만민교회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물 1동 1281 지하 ☎070-8764-3000, 010-7703-4217
- 대전만민교회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동 37-1 ☎042)625-1205, 633-6283, 010-5434-3927
- 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북구 동림동 909-4 시청 강 건너편 ☎062)513-2455, 010-8888-0727
- 새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차평동 1181 온천초등학교 정문 앞 ☎062)372-1002, 010-2290-7779
- 동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북구 각화동 167-4 ☎062)266-7001, 010-3637-6443
- 울산만민교회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동 1532-3 ☎052)257-5011, 010-2485-1537
- 남울산만민교회 울산광역시 중구 남외동 549-46 ☎052)291-2253, 010-2505-1537

- 안성만민교회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진사리 102-1 ☎031)652-9981, 010-3278-7712
- 연천만민교회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 석장리 197 ☎031)835-1717, 010-2634-5478
- 천안만민성결교회 충남 천안시 성정동 722-3 ☎041)577-7077, 010-3447-7077
- 공주만민교회 충남 공주시 신관동 600-22 ☎041)881-7000, 010-3030-7025
- 서산만민교회 충남 서산시 잠룡동 564-15 ☎041)667-4721, 010-2781-2073
- 아산만민교회 충남 아산시 권곡동 535-16 ☎041)546-1537, 010-2672-0244
- 사랑만민교회 충북 계룡시 금암동 16-4 ☎042)841-0091, 010-7195-1099
- 청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흥덕구 수곡 1동 173-11 ☎043)293-7077, 010-9271-7017
- 새청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상당구 율랑동 956 ☎043)211-1955, 010-8291-7173
- 충주만민교회 충북 충주시 연수동 700번지 무진사거리 201호 ☎043)845-0617, 010-2278-0641
- 미산만민성결교회 경남 창원시 마산 회원구 회원 2동 626-1 ☎055)247-8891~2, 010-5527-2073

- 말안만민교회 경남 밀양시 내이동 1524-14 ☎055)353-9192, 010-9382-2073
- 진주문만민교회 경남 사천시 사천읍 선인리 301-5 ☎055)852-5815, 010-9196-3927
- 김해만민교회 경남 김해시 부원동 626-18 ☎055)322-7055, 010-6605-2254
- 창원만민교회 경남 창원시 성산구 내동 456-12 5층 ☎055)289-9522, 010-9331-4405
- 통영만민교회 경남 통영시 용남면 화심리 965-1 ☎055)648-9107, 010-7224-8891
- 거제만민교회 경남 거제시 옥포 2동 520-20 (3층) ☎055)687-6882, 010-3800-2048
- 경주만민교회 경북 경주시 동천동 835-6 ☎054)748-5777, 010-3747-5777
- 포항만민성결교회 경북 포항시 북구 죽도동 58-14, 4층 ☎054)920-4512, 010-3343-1537
- 남포항만민교회 경북 포항시 남구 대정동 909-10호 3층 ☎054)281-2468, 010-7940-9367
- 구미만민교회 경북 칠곡군 북삼읍 인평리 1098-1 ☎054)920-4512, 010-3343-1537
- 여수만민성결교회 전남 여수시 둔덕동 500-5 ☎061)652-8311, 010-7317-2073
- 목포만민성결교회 전남 목포시 용영로 281번지 중원빌딩 301호 ☎061)284-3133, 010-2629-8275

- 무안만민교회 전남 무안군 해미면 천장리 산 153 ☎061)452-7443, 010-3153-1723
- 순천만민교회 전남 순천시 조례동 1616-14 ☎070-4028-2515, 010-2536-2515
- 진주만민교회 전북 진주시 완산구 효자 2가 929-1 ☎063)223-9991, 010-4202-1537
- 익산만민교회 전북 익산시 모현 1동 250-3 ☎063)853-0675, 011-637-0263
- 군산만민교회 전북 군산시 나운동 798-7 ☎063)468-7027, 010-7777-7027
- 춘천만민교회 강원도 춘천시 동내면 학곡리 2-1(순환대로 637) ☎033)261-4217, 010-2759-7017
- 원주만민교회 강원도 원주시 개운동 475 ☎033)766-1535, 010-9108-2073
- 속초만민교회 강원도 속초시 영랑동 163-64 ☎033)637-0271, 010-7733-1327
- 강릉만민교회 강원도 강릉시 포남2동 1312-4 3층 ☎033)641-3790, 010-6334-7750
- 제주만민교회 제주시 노형동 2775-1 ☎064)745-0675, 010-2468-2251
- 강남지성전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960-5 ☎02)556-8517~8, 010-7223-2073
- 북부지성전 서울시 강북구 수유 3동 188-26 ☎02)995-9951, 011-1717-1217

- 안산지성전 경기도 안산시 월피동 508-1 ☎031)485-9143, 017-366-5914
- 인천지성전 인천시 남구 주안 5동 23-41 ☎032)863-9857, 011-287-7369
- 검단지성전 인천시 서구 마전동 698-12 ☎032)569-3835, 010-7720-7770
- 분당지성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367-4 ☎010-6355-1928
- 일산지성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1452-3 ☎031)905-2419, 019-276-1014
- 구리지성전 경기도 구리시 교문동 735-1 ☎031)552-7397, 010-2290-1856
- 강동지성전 서울시 강동구 길 1동 348-5 ☎02)489-3766, 010-3330-3172
- 부평지성전 인천시 부평구 부평 4동 890-3 ☎032)528-3830, 010-7720-7770
- 수원지성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1109번지 ☎031)202-8480, 010-2213-2073
- 이천지성전 경기도 이천시 총리동 465-4 ☎031)635-9103, 010-2718-7458
- 의정부지성전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 3동 165-1 ☎031)840-2906, 010-2251-3149